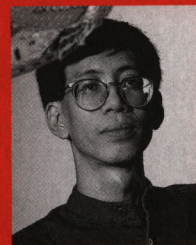


Culture-based Graphic

윌리엄 해럴드 왕
WHW 디자인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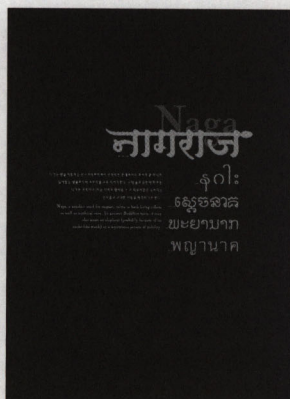
William Harald-Wong
Principal and
Design Director,
William Harald-Wong
& Associates,

바이오그래피 | 윌리엄 해럴드 왕은 19년 이상 디자인계에 종사하였으며 시드니에서부터 베이징, 우즈베키스탄에서 모잠비크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지역적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글로벌 브랜딩과 지역적 문화의 특색과 자부심의 균형을 중시하여 왔다. 그는 각종 국제, 지역 학술회의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동남아시아 문화와 디자인에 관한 강연을 해왔으며 오사카에서 열린 '여섯명의 아시아 디자이너', 오사카와 도쿄의 '글로벌 전시-세계 33인의 디자이너' 등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첫 개인전 '나가-아시아의 사진'이 2004년 10월 서울 삼원 갤러리에 전시되었다. 그는 아시아 10 여개국 디자이너와 디자인 이론가들의 협력네트워크인 디자인 연합 Design Alliance의 창립 멤버이다. 디자인 연합은 연구, 교육, 출판, 예술과 문화 교류 등 각종 사업을 진행 중이다.

Biography | William has been engaged with design for more than 19 years. With projects spread over far-ranging and diverse geographical locations, from Sydney to Beijing; Uzbekistan to Mozambique, he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balancing the needs of global branding with local culture and local pride. He frequently speaks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design conferences on topics ranging from brand identity to the design and culture of Southeast Asia. William has participated in many group exhibitions including 'Six Asian Designers' (Osaka) and 'The Global Exhibition-33 Designers from around the World' (Osaka & Tokyo). His first solo exhibition, 'Naga-Serpent Spirit of Southeast Asia', opened at the Samwon Gallery in Seoul in October 2004. He is the founding associate of The Design Alliance, a collaborative network of Asian designers and design thinkers, presently represented in ten Asian countries. The Design Alliance is involved in research, education, publishing and art and cultural exchange.

나가(那伽)- 현대행위를 위한 고대 사상

Naga— Ancient Thoughts for Modern Practice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Typographic Design

범어(梵語)로 뱀을 의미하는 단어 '나가(Naga)'는 실제 및 상상 속 코브라 모두를 지칭한다. 고대 불교경전에서는 뱀처럼 생긴 코때문인지 코끼리를 의미하거나 신비에 싸인 고귀한 인물을 상징하기도 했다.

서울에 위치한 삼원갤러리에서 '나가'에 대한 슬라이드 발표를 마쳤을 때였다. 눈이 맑은 한 한국 여성이 다가오더니, 뱀 영상과 다양한 아시아 문화에서 뱀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보면서 문득 어머니가 해 준 말이 생각났다고 했다. 예전에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태몽으로 뱀 꿈(여성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신호)을 꾸었고 그 후에 자신을 낳았다는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꿈틀거리리는 뱀은 어떻게 여성 본질과 연관되었으며 탄생을 비롯한 여러 통과 의례와 뱀은 또 어떤 관계인가? 이러한 고대 믿음이 우리네 기억 언저리에 겨울잠을 자듯 웅크리고 앉아, 우리에게 영원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육계(肉界)의 신호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오늘 날 세계에서 이 메시지는 어떤 타당성을 지니는가? 내 삶과는 또 무슨 관계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안고있는 문제 중 하나는 무언가에 쫓기듯 매일 변하는 정보를 수시로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뉴스에 중독되고, 이 시각의 이야기에 중독되었다. 모든 매체 경로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소음과 과부하가 우리 삶을 포화 상태로 만들도록 방치하고 있다.

빛의 속도로 정보를 잡으려는 이 배고픔, 아니 그렇게 해야 할 강요된 필요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혼에 불을 놓는 글에서 손을 떼 저기 멀리 밀쳐둔다. 부처, 공자, 플라톤, 피테, 그리고 많은 현인들의 사상을. 그리스와 아시아 문명이 낳은 불멸의 서사시들. 작가, 시인, 신비주의자, 예술가의 심오한 통찰을. 그리고, 부족 어른들의 지혜를 우리는 모두 제쳐둔다. 하지만, 현재들은 모두 우리네 삶의 구심점과 관련된 영원한 가치를 알려주며, 우리가 내부의 영적인 '알'과 신성 경험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문제를 이겨내도록 도와준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명한 학자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우리가 진실로 추구하는 것은 삶의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경험을 추구한다. 이 철저한 육(肉)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네 삶 경험이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자아와 본질로 울려 퍼져, 실제 우리가 살아있다는 환희를 느끼고 싶은 것이다."

'나가'는 초기 동남아시아인의 삶에 강력한 '땃'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이 나가가 오늘날 사회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가? 북아시아의 용 또한 신비에 쌓여있긴 하지만 사람들 마음 속에 매우 실질적인 살아있는 존재다. 하지만, 나가는 오늘날 동남아시아에서 모호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나가의 세속적 형태인 코브라가 생명을 주는 동시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중적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나가의 신비한 영향력을 억압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상충 때문이다.

수많은 섬과 강, 긴 해변이 위치한 동남아시아는 물에 기반을 둔 몇몇 문명이 잉태된 곳이다. 이곳에 있는 거의 모든 민족이 세상 창조는 물, 일반적으로 우주 불(cosmic fire)에 이은 홍수 형태의 물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바다에서 항해하며 규칙적으로 물이 있는 지역을 돌아다녔다. 그래서, 땅을 지나면 바다가 나오고 또 바다를 지나면 땅이 나오는 것을 직접 경험 한 것이 결국 성산 메루산(Mount Meru)을 중심으로 대양과 대륙이 번갈아 나타나는 힌두교와 불교의 우주모형 형성(또는 채택)으로 이어졌을지 모른다.

이렇게 대양과 대륙이 물결 치듯 번갈아 나타나는 모습은 흡사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가는 나가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이러한 시각적 연계는 결국 뱀신 나가가 동남아시아 많은 지역에서 경배 대상이었기 때문에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

태국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시계 방향으로 메루산을 타고 내려오는 물 또한 바깥 마른 아래쪽 눈에 생명의 물과 비를 전달하는 나가를 상징한다.

나가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대지의 물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다. 그리고, 장마 시기는 어린 코브라가 알을 깨고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기에 대지의 풍성함과 재탄생 상징을 한층 강화 해주었다. 이 믿음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거주지역 중 상당 부분이 농경지였기 때문이다.

세속적으로 살아있는 코브라를 의미하는 나가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몸을 곳곳이 세워 공격할 때, 코브라 머리는 돌처럼 굳은 사람의 눈을 같은 높이에서 쳐다볼 정도로 높은 위치에서 태고의 공포와 신비를 내뿜는다. 사람들이 나가를 전능한 자연의 신령으로 떠받들고 경외하며, 혹시라도 노여워할까 정성을 다한 것도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앙코르의 크메르 국왕들은 백성의 나가 신 경외를 자신들 정치 권력 강화에 이용했고, 스스로를 나가 왕이라 칭하며 백성의 경외심과 복종을 이끌어내려 했다.

2,500년 전, 불교 승려가 정령을 숭배하던 동남아시아를 찾았을 때, 뱀을 신으로 모시는 관습이 너무나 강해 사람들이 불교로 귀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처 이야기에 나가를 담아야 했다. 부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경(本生經, Jataka)'을 보면, 싯다르타 왕자가 태어날 때 뱀이 정원에 나타나 대지에서 따듯

Naga, a Sanskrit word for serpent, refers to both living cobras as well as mythical ones. In ancient Buddhist texts, it may also mean an elephant (probably because of its snake-like trunk) or a mysterious person of nobility.

A bright-eyed Korean woman came up to me after my slide presentation on Nagas at the Samwon Gallery in Seoul. She told me the experience of watching images of serpents and their manifestations in diverse Asian cultures triggered memories of her childhood days, when her mother related how snakes started to appear in her dreams during her pregnancy—a potent sign that something female was stirring—and she was thus born.

How did this connection between writhing snakes and female essence transpire, or their relation to birth, and other rites of passage? Why do these ancient beliefs hibernate at the fringe of our memory waiting for a cue in the physical world to release their eternal messages? What are these messages and what is their relevance in today's world?

What do they have to do with my life?

One of the problems many of us face today is that we are driven to keep up with information that changes by the day, and we have become addicted to the news of the day, the story of the hour. We willingly allow the noise and overload to saturate our lives through all media channels.

This hunger, or often, an enforced necessity, to catch information at the speed of light has caused us to drop or relegate literature that set the soul aflame—the thoughts of the Buddha, Confucius, Plato, Goethe and many other illuminated personages; the immortal epics of Greek and Asian civilizations; the insights of writers, poets, mystics and artists; the wisdom of tribal elders. Collectively they speak of eternal values that have to do with the centering of our lives, and help us survive the pressures of the here-and-now with the inner spiritual knowing and divine experience.

The late pre-eminent scholar Joseph Campbell once remarked, "people say that what we're all seeking is a meaning in life. I don't think that's what we're really seeking. I think that what we're seeking is the experience of being alive, so that our life experiences on the purely physical plane will have resonance within our own innermost being and reality, so that we actually feel the rapture of being alive".

*Nagas are
regarded as guardians
of the waters of the
earth, essential
for a bountiful harvest.
The coming of the
monsoon rains is also
the time when the
young of cobras emerge
from their eggs and
further reinforces
the symbolism of fertili-
ty and rebirth of
the earth.*

한 물이 솟아나는 샘을 만들어 아기 왕자가 이승에서 첫 목욕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적혀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는 뱀을 악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를 부처와 연계하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기독교의 경우, 뱀은 흔히 악마와 연계되고 성 조지(St. George)가 용(또는 뱀)을 물리친 이야기처럼 소위 '구원자 대 뱀'의 상징이 폭 넓게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연 피조물 중 어떤 것도 악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뱀 또한 부처에게 헌신하고, 부처를 보호하는 피조물이라는 동등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머리 일곱 달린 무시무시한 뱀이 부처 좌상 뒤에서 부처를 보호하는 모습은 동남아시아 예술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이다. 힌두교 신화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힌두교 신 비슈누(Vishnu)가 잠을 자고 있고 나가가 그 주변을 지키는 모습은 힌두교 신을 불교와 직접 연결 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관계를 생각하면, 태국과 캄보디아에 있는 고대 힌두교 사원이 어떻게 애초 성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쉽게 불교 사원으로 전환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나가는 음양 완전체로 남성 상징이면서 동시에 여성 상징이기도 하다. 인도와 동남아 전역에서 코브라의 곳곳이 선 자세와 우산처럼 펼쳐지는 목은 남성의 성기를 상징했다. 힌두교 사원의 경우, 코브라는 파괴와 창조의 신인 시바(Shiva)의 발현으로 여겨졌다. 시바 사원에서는, 남근 형태의 링가(linga)가 여근 형태의 요니(yoni) 가운데 자리잡고 있고 그 주변을 돌로 새긴 코브라가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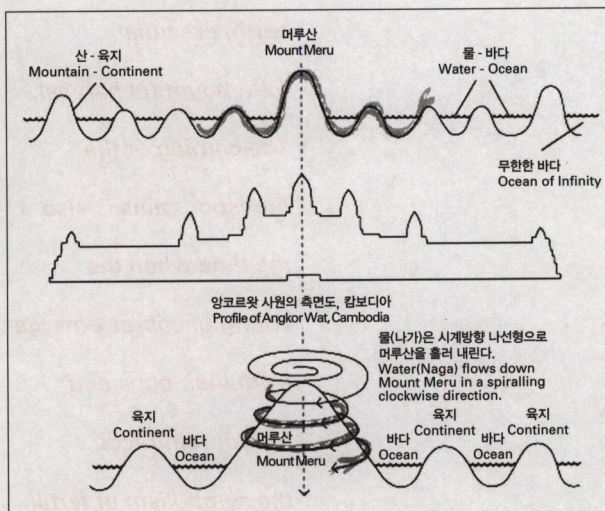
링가는 메루산에 비교할 수 있다. 둘 모두 생명의 물을 흘려 보내고, 바닥에는 그 물을 담은 일종의 저장소가 있다. 링가의 경우, 그 저장소는 생명이 형태를 갖추는 곳인 여근, 즉 요니다.

이 상징이 갖는 의미는 농사와 인간 차원의 다산이다. 스칸다 푸라나(Skanda Purana)에 따르면, 링가는 생성과 소멸 과정의 우주를 구성하는 본질을 상징한다.

아시아 지역의 상징은 기원이 다양한 고대 뿌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상징이 여러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탈리아 인류학자 가브리엘라 아이싱어 페로-루지(Gabriella Eichinger Ferro-Luzzi)는 모양새, 움직임, 그리고 땅 속 굴에서 산다는 점을 감안하면 뱀은 남근 상징이라 할 수 있지만, 뱀은 대지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어머니라 부르는 대자연(Mother Earth)을 대표하는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 상징도 된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뱀의 발자취를 쫓다가 직물을 짤 때 염색제로 사용하거나 약초로 사용하는 귀중한 식물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래서 뱀을 여성과 연계하고, 여성이 전통적으로 맡아온 일에 연계하곤 했다.

많은 사원에서 나가는 대문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쪽에는 나가 남신이 자리잡고 있고 반대 쪽에는 가슴이 있는 여신 나가가 지키고 있다. 이 나가 쌍은 음과 양을 나타내며, 따라서 둘 사이의 역동적 균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고대 믿음 중 상당수가 악기장식과 수 많은 실용적 도구 뿐 아니라 다양한 의식, 무용, 민속예술, 직물, 그림, 조각, 건축, 도시계획 등의 일상 생활에 시각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예술가와 장인은 수 세기 동안 나가 주제와 형태를 탐구해 왔고,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슬람과 기독교를 포용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두 종교가 모든 유형의 우상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에, 나가 신 뿐 아니라 초기 정령신앙에 뿌리를 둔 모든 신비하고 상징적인 존재가 억압되어 왔다. 이슬람을 신봉하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고대 믿음 중 상당수가 전통 목공예의 꽃



힌두교도-불교도 우주론
Hindu-Buddhist Cosmology

The Naga had served as a powerful anchor in the lives of early Southeast Asians. What hold does it have on today's society? Unlike the North Asian Dragon, which, though equally mysterious, is very much alive and real in people's mind, the Naga occupies a nebulous presence in Southeast Asia today. This is because of the dual nature of its earthly form, the cobra—life-giving yet at the same time deadly—as well as conflicting interests among people that aim to suppress its mysterious influence.

Southeast Asia, with its many rivers, islands and long coastal stretches, gave rise to several water-based civilizations. Almost every ethnic group in Southeast Asia believes that the creation of the world involved water, usually in the form of a flood that followed the cosmic fire.

As sea-faring people regularly traversing the watery region, the experience of the sea alternating with the land could have led to the formulation (or adaptation) of the Hindu-Buddhist Cosmological Model, which has alternate rings of oceans and continents with the sacred Mount Meru in the centre.

The undulating profile of these oceans and continents resembles the slithering movement of the Naga—this visual link probably arose because the serpent spirit was worshipped in much of Southeast Asia.

It was also believed that the water flowing clockwise down Mount Meru represents the Naga, as illustrated in murals in Thailand, bringing life-giving water and rain to the parched rice fields below.



Nagas are regarded as guardians of the waters of the earth, essential for a bountiful harvest. The coming of the monsoon rains is also the time when the cobras' young emerge from their eggs and further reinforces the symbolism of fertility and rebirth of the earth. This belief was as widespread in much of inhabited India and Southeast Asia as was agricultural land.

The Naga, in its earthy form as a living cobra, was also a deadly and terrifying creature. When the cobra rears up to strike, its head is high enough to look straight into the eyes of a petrified villager, radiating primordial terror and mystery. It's no wonder that the serpent was elevated to the status of an all-powerful nature spirit that had to be venerated and appeased. The Khmer kings in Angkor exploited the common man's veneration of the Naga spirit for political power and installed themselves as Naga-kings to inspire awe and subservience from their citizens.

When Buddhist monks came to animist Southeast Asia 2,500 years ago, they found the snake-cult so powerful that to convert the natives they had to incorporate the Nagas into the stories of the Buddha. In the Jataka, a story of one or other of the previous births of the Buddha, serpents appeared in the garden when Prince Siddhartha was born, causing a spring of warm water to flow from the earth to enable the baby to have its first bath.

It was easy to associate the Naga with the Buddha since the serpent was not perceived as evil in traditional Asia. In Christianity, the serpent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Devil and the religion promoted the symbolism

는

말레이시아 북부의 라이스필드.
농부를 공격하지는 않지만 쥐를
사냥하는 코브라가 많이
발견된다. 페낭, 말레이시아.

Rice Fields

Rice fields in northern Malaysia. Deadly cobras are commonly found in rice fields where they hunt for rats but rarely attack farmers. Penang, Malaysia

*The Naga belongs to
a parallel world. This
parallel world is inhabited
by spirits, chi, hungry
ghosts, electromagnetic
energy, gods and Gods,
soundwaves, angels
and demons... This sphere
is neither inherently good
nor bad, true or false
and either have nor does
not have the power to
evoke a meaningful
response; it embrac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is eternal and inde-
structible. It transposes
and permeates our
physical world of water,
fire, wood, metal, earth,
and 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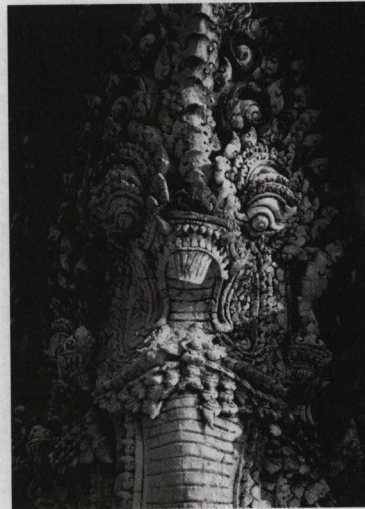


금박부처

신자들은 절 시주의 일환으로
조그만 네모 모양 금박을 사서 불상에
문지른다. 태국 방콕.

Gold Leaf Buddha

Devotees purchase small
squares of gold leaf as
a donation to the temple
and rub the gold against
the statue of Buddha.
Bangkok, Thailand



수코타이

태국과 캄보디아 전역에
있는 고대 힌두교 또는 불교
사원을 살펴보면, 상인방과
거푸집 난간대, 초입 구조물
위에 나가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태국 수코타이

Sukhothai

Hindu or Buddhist,
nagas are found on lintels,
form balustrades, and
above every entry in
ancient temples throughout
Thailand and Cambodia.
Sukhothai, Thailand.



링가와 요니

집안 사원에 있는 링가와
요니. 인도 가네라오
(Ghanerao)

Linga & Yoni

Linga-yoni in a family
temple. Ghanerao, India

of savior-versus-serpent, for example, St. George slaying the dragon-serpent. None of nature's creatures are demonized in Buddhism and the serpent is given equal privilege to serve and protect Buddha.

The image of the seated Buddha protected by a powerful serpent with seven hoods is an archetypal image in Southeast Asian art. One finds a similar image in Hindu mythology whereby a Naga guards the sleeping Hindu god Vishnu thereby linking Hindu deities directly with Buddhism. This relationship explains why the ancient Hindu temples in Thailand and Cambodia were easily converted to Buddhist temples while maintaining the same iconic images on the buildings.

The Naga was both a male and a female symbol; a yin and yang complete. The rearing, erect stance and spread hood of the cobra represents the male sex organ to villagers throughout India and Southeast Asia. In Hindu temples, the cobra is considered a manifestation of Shiva, god of destruction and creation. One finds in these Shiva temples the phallic linga set in the yoni, the female counterpart, often guarded by carved stone cobras.

The linga is comparable to Mount Meru. The waters of life flow down both, and each has a receptacle at the base. In the case of the linga, it is the yoni, the female genitalia, where life takes form. The symbolism here is of fertility, which is both agricultural and human. The linga, according to the Skanda Purana, symbolizes the substance of the universe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dissolution.

Symbols in Asia have ancient roots from many sources and the same symbol may have several meanings. The Italian anthropologist Gabriella Eichinger Ferro-Luzzi points out that if its shape, movement and the fact that it lives in holes in the ground are considered, the snake tends to become a male phallic symbol... but the snake, living in the earth, may also be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of Mother Earth, and hence a female symbol. Villagers follow the trail of snakes to special plants, which provide medicinal herbs and dyes for weaving, thereby, linking the serpents to women and their traditional preoccupations.

Many temples have Nagas as door guardians, often a male Naga on one side and a female, complete with breasts, on the other side. These pairs of Nagas represent the yin and yang elements and therefore symbolize the dynamic balance between the two.

Many of these beliefs find visual release in daily life; in ritual, dancing, folk art, textiles, painting, sculpture, architecture, town planning as well as decoration on musical instruments and many utilitarian objects. Artists and artisans have explored Naga themes and form for centuries and this continues till today.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have largely embraced Islam or Christianity, the Naga spirit, as well as all things mystical and symbolic from earlier animist roots, have been suppressed since both teachings strictly prohibited all forms of idolatry. In Islamic Malaysia, many of the ancient ideas have found new expression in the swirling floral motifs of traditional woodcarving and the Nagas survived the religious purge, living on symbolically as the Kris, a deadly knife often used in ceremonies and rituals in Malaysia and Indonesia, the most important symbol of supreme power.

The Naga belongs to a parallel world (Niskala, Balinese: that which cannot be sensed directly, but which can only be felt within; and similar concepts in other Asian cultures). This parallel world is inhabited by spirits, chi, hungry ghosts, electromagnetic energy, gods and Gods, soundwaves, angels and demons. This sphere is neither inherently good nor bad, true or false and either have nor does not have the power to evoke a meaningful response; it embrac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is eternal and indestructible. It transposes and permeates our physical world of water, fire, wood, metal, earth, and air.

This parallel world, which Alexander Elliot calls "mythosphere", his original and thoroughly intriguing concept, is where "we do our thinking, dreaming, and imagining". It is nurtured by the collective observation, imagination and memory of every man, woman and child since primordial time. This parallel world can never be overcrowded for our mind has infinite space and we can receive an unending stream of human experience... religious parables, creation myths, heroic legends, epics, folktales and fairytales... that sit comfortably with precise explanations of the world in scientific, rational terms. For many of us, our personal slice of this parallel world has been largely purged of its magical contents... we lost our inborn sense of wonder and courage when, as a growing teenager, we were told by parents and teachers that these myths and stories are silly and were then left stranded to face the 'real world' with all its brutal explanations and rational constraints.

This parallel world and our world of creativity resemble

모티브에 새롭게 표현되었으며 나가는 종교적 억압을 이겨내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각종 종교의식과 행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무시무시한 칼, 크리스(kris)가 되어 그 상징적 생명을 이어오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크리스는 최고 힘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나가가 속하는 세계는 평행세계다. 이 세계는 발리어로 니스카라(Niskala: 감각으로 직접 분별할 수 없으며 오직 내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세계) 또는 다른 아시아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사한 개념을 지칭한다. 이 평행세계에는 영(靈), 치(chi), 아귀(餓鬼), 전자기 에너지, 신(神), 음파(音波), 천사, 악마 등이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선의 세계도 악의 세계도 아니요, 참의 세계도 거짓의 세계도 아니다. 의미 있는 반응을 이끌어 내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세계이며 영원한, 파괴 불가능 세계다. 그리고, 화(火), 수(水), 목(木), 금(金), 토(土), 공기로 구성된 우리네 육계(肉界) 내부로 깊이 스며드는 세계, 이것이 평행세계다.

또, 평행세계는 알렉산더 엘리엇(Alexander Elliot)이 “신화계(mythosphere)”라 부르는 독창적이고 매우 흥미로운 개념의 세계로, 이곳에서 “우리는 사고하고, 꿈을 꾸고 상상을 펼친다.” 태고 시대부터 모든 남성, 여성, 아이의 집단 관찰, 상상, 기억을 먹으며 유지되어 온 이 세계는 절대 과포화 상태에 이르는 법이 없다. 우리 정신은 무한 공간이며, 우리가 끝없이 흐르는 인간경험... 종교우화, 창조신화, 영웅전설, 서사시, 민담, 동화... 등을 포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세계에 대한 과학 및 이성 차원의 정밀한 설명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개개인의 평행세계 단편은 대부분 그 마법과 신비의 내용을 상실해 버렸다. 우리는 십대 시절을 지나며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이 신화와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 들었고, 어쩔 수 없이 냉엄한 설명과 이성의 압박으로 가득한 소위 ‘진짜 세계’를 직면해야 했다. 그 때, 이미 우리는 타고난 경이와 용기에 대한 느낌을 상실한 것이다.

평행세계와 우리네 창조력 세계는 둘 다 이성 의식을 넘어 정신 활동 영역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서로 닮았다. 디자이너로서, 우리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끊임 없이 이 세계로 걸어 들어간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나타나 자기네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고 그 세계에게 묻는다. “오늘은 어떤 선물을 가져 왔나요?”

나가가 역사 초기 사람들에게 가져 온 선물은 이들이 자연 현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 준 것이며, 복잡한 철학 및 종교 사상을 이해하도록 도와 준 것이다. 그리고, 집단 창조

적 상상력이 흐르는 강력한 도관(導管)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종교 및 실용 오브제를 창조할 때 미적 형태와 우아함에 대한 영감을 얻게 해 준 것이다.

나가는 우리가 오랜 세월 삶의 진실, 의미, 지혜를 찾아 걸 어온 길을 대변한다. 나가는 우리가 영원과 접촉하고 신비를 이해하며, 우리가 누구이며 세계와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지 찾아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많은 이야기들이 더 없이 대담한 상상력을 뛰어 넘으며, 우리가 허락만 한다면 육신과 정신에 심오한 방향을 일으켜 우리를 황홀함과 매혹의 세계로 인도한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황홀한 느낌”을 갖거나 우리 자신의 ‘도둑맞은 미래’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옥스포드 대학 웨스트(M.L. West)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기발한 동양의 상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자유를 그리스인에게 부여해 주었다 할 수 있다. 그리스인이 인간의 세대 차원을 넘어 1만 년 주기를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하늘과 토대를 이루고 있는 땅을 넘어 무한세계를 생각하며, 자궁과 무덤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영겁과 영겁을 지나며 다른 육체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을 생각하게 된 것도 동양의 상상 덕분이었다 할 수 있다.”

아시아가 수천 년 동안 비이성적, 비직선적 평행세계를 포용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위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지금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방법의 ‘보기(seeing)’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시아의 이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each other because they both access domains of psychic activity that lay beyond rational consciousness. As designers we constantly, perhaps unconsciously, tap into this world and soon whole new worlds appear and begin to tell their stories. What we must now do is to gratefully, purposefully ask "and what gifts do you bring today?"

The gift Nagas brought to earlier people was to help them be in rhythm with natural phenomena, to grasp complex philosophical and religious ideas, and as a powerful conduit for the collective creative imagination that inspired aesthetic form and grace in the creation of objects, both sacred and utilitarian.

Nagas represent our search through the ages for truth, for meaning, the wisdom in life. It helps us to touch the eternal, to understand the mysterious, to find out who we are and our relationship to the world. Many stories surpass the boldest flights of imagination that can, if only we allow, to stir deep resonance in the body and mind and leave us enraptured, transported, enchanted. We can either "feel the rapture of being alive" or we can be comfortable living in our own stolen future.

The Oxford classicist M.L. West said "In some ways one might say that it was the very extravagance of oriental fancy that freed the Greeks from the limitations of what they could see with their own eyes; led them to think of ten-thousand year cycles instead of human generations, of an infinity beyond the visible sky and below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of a life not bounded by womb and tomb but renewed in different bodies eon after eon."

Given this millennia-old tradition in Asia to embrace the non-rational, non-linear parallel world, it would be logical to suggest that this would be Asia's greatest advantage in driving new concepts and new ways of seeing when we design for the world. ■

나가와 일상생활 Nagas in daily life



아이스크림 상인

한 상인이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다. 사진 속에, “청목 밀크 아이스크림. 아몬드가 들어 있는 캐슈 피스타치오. 2, 3, 5, 7 루피”라 적혀 있다. “청목(Blue Throat)”은 독을 마셔서 청색으로 변하는 로드 시바(Lord Shiva)의 다른 이름이다. 세상을 구한 로드 시바의 청색 상징은 나가의 목 주변을 표현하고 있다. 인도 아즈메르(Ajmer).

Ice cream vendor

A vendor selling milk ice-cream. The text reads ‘Blue Throat. Milk ice cream depot; cashew pistachio, filled with almonds; 2, 3, 5, 7 rupees.’ “Blue Throat” is another name for Lord Shiva who turns blue because he drank the poison, symbolized by the naga around his neck, and saved the world. Ajmer,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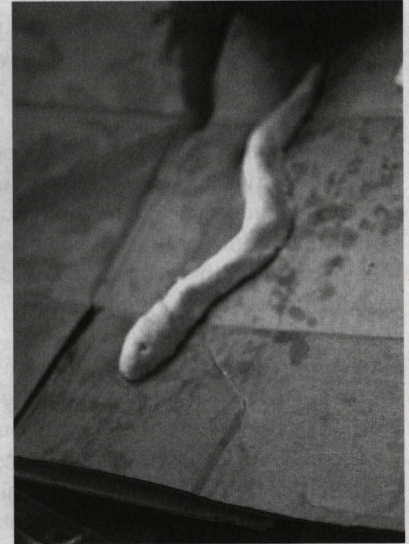
중국음식

상업에서 나가가 지닌 의미. 인도 뭉바이에 위치한 한 중국 식당에 뱀 모습이 보인다. 식당 메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번영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사용된 것이다. “가네쉬(Ganesh)”는 지혜와 장애를 제거를 상징하는, 코끼리 머리의 힌두교 신을 말한다. 인도 뭉바이(Mumbai).

Chinese Food

Nagas in commerce. Above, the icon of a snake for this Chinese restaurant in Mumbai, India, is not indicative of its menu, but as a symbol for business prosperity. “Ganesh” refers to the elephant-headed Hindu deity of Wisdom and Remover of Obstacles. Mumbai, India

나가와 의식 Naga in ritual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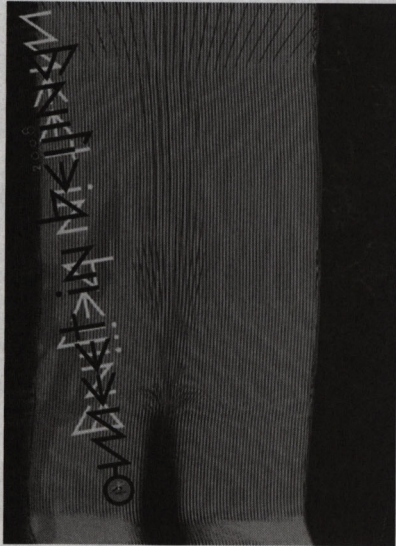
밀가루 뱀

밀가루로 만든 대지의 동물(나가, 코끼리, 개 등)은 신령을 불러내는 축복 및 치유 의식에서 보호 역할을 한다. 동물은 인간세계와 천상을 연결하는 중간자이며 인간은 볼 수 없는 초월적이고 잠재 의식적인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밀가루 반죽으로 빚은 동물상은 의식이 끝나면 강물에 띄워 보낸다. 말레이시아 끌란탄(Kelantan)

Flour snake

Animals of the earth(nagas, elephants, dogs, etc) made of flour provide protection for blessing or healing rituals that invoke the spirits. Animals are intermediaries between the human-world and heaven, and are able to see and understand things, transcendental and subliminal, that humans cannot. The flour animal figures float away on a river after the ceremony. Kelantan, Malaysia

나가와 동시대 디자인 Naga in contemporary design



붉은 카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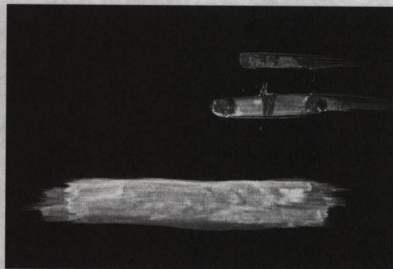
클라이언트: 중국 패키지 & 디자인 매거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게임 순회전시 포스터. 동남아시아에서 생명을 부여하는 에너지와 부활을 상징하는 나가가 북쪽으로 이동해 중국의 용과 일전을 치른다.

Red Carpet

Client: Package & Design Magazine, China

Poster for Beijing Olympics Games 2008 traveling exhibition. The Naga, the Southeast Asian symbol of life-giving energies and renewal, travels northwards to engage the Chinese dra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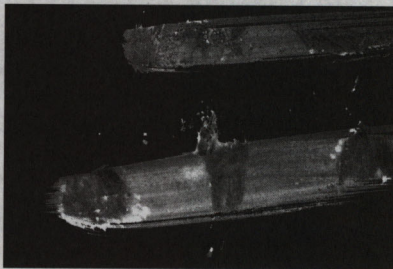


악의 밀레니엄

클라이언트: 말레이시아 국립미술관

2000년을 기념하는 포스터 두 작품

별이 다른 별을 집어 삼키는 NASA 영상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 무시무시한 야만성을 표출한 영상이지만 동시에 시간을 초월한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작품의 최종 그래픽 표현 아이디어는 코소보 사태, 미국 콜로라도에 위치한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격사건, 인도네시아의 종파 충돌, 할리우드 영화의 유혈 총격장면과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관객의 비명, 유명한 암살사건에 대한 기억들에서 얻었다. 새천년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기쁨, 번영, 정의의 기간(유니버설 사전)"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우주의 야만, 인간의 어두운 상황 또한 문턱을 넘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 파괴적 힘은 결국 창조, 파괴, 재창조로 구성된 우주 질서의 한부분이라 할 수 있다.



Malignant Millennium

Client: National Art Gallery, Malaysia

A pair of posters to commemorate the year 2000.

Work inspired by a stunning NASA image of a star devouring(eating) another star, an image of terrifying savagery, yet of timeless and wondrous beauty. The idea found its final graphic expression after events in Kosovo, the shooting at Columbine High School(Colorado, USA), sectarian clashes in Indonesia, bloody shoot-outs in Hollywood movies which had audiences screaming for more, and memories of a famous assassination. Although the new millennium is a "hoped-for period of joy, prosperity, and justice"(Universal Dictionary), it is also evident that a universal savagery, a dark condition in man, will cross the threshold as well. These pockets of destructive force are part of the whole cosmological order of creation, destruction and re-creation.

Bibliography

Campbell, Joseph. The Power of Myth. USA: Apostrophe S Productions Inc. and Alfred van der Marck Editions, 1988.

Eliot, Alexander. The Timeless Myths. USA: Truman Talley Books and Meridian, 1996.

Jumsai, Sumet. Naga-Cultural Origins in Siam and the West Pacific. Bangkok: Chalermit Press & DD Books, 1998.

McNeely, Jeffrey A. and Paul Spencer Wachtel. Soul of the Tiger-Searching for Nature's Answers in Southeast Asia.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Zimmer, Heinrich. Myths and Symbols in Indian Art and Civilization. USA: Princeton University Press and Bollingen Foundation, 1972.

Humberto Maturana a Chilean biologist defines the process of Autopoiesis through a definition of 'living machines': "An autopoietic machine is a machine organized as a network of production processes that produces the components which: on one-hand, through their interactions and transformations, continuously regenerate and realize the network of processes that produced them; and on-the-other-hand, constitute it as a concrete unity in the space in which they exist by specifying the topological domain of its realization as such a network."

Maturana defines a living system as one which must conserve both its **identity** and its means of “fitting” with its environment. It not only establishes but also maintains a unique boundary with the surrounding world—a boundary which simultaneously separates and connects the system.

Mansour Maboudian

Visiting Professor,
Faculty of Crafts and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